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 2012. 1.10

위원정수 : 7명 재적위원 :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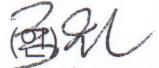





1. 일 시 : 2012. 1.18(수)
2. 장 소 : 본 대학 205호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주원, 이승원, 정지열, 박유미, 김혜진, 지유정, 이지홍 (이상7명)
4. 안 건 : 가.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나. 2012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록금 책정(안) 심의
다. 2012학년도 평생교육원 시간제등록생 등록금 책정(안) 심의

5. 회의내용

- 총장은 먼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아울러 새로이 위촉된 신입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다
- 기획처장은 위원들에게 위원장을 선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다
- 이승원위원은 이주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 정지열 위원이 동의하고 이지홍 위원이 제청하다
- 선출된 위원장은 먼저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 기획처장은 2012학년도 등록금 책정과 관련, 최근 3년간 동결한 우리대학은 금년에도 서울지역 타대학평균 3%이하보다 큰 5%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인하하였음을 설명하다.
- 위원들은 첨부자료를 참고로 우리대학의 등록금이 타대학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5% 인하를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학교 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다
정지열 위원의 동의에 이어 박유미 위원이 제청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다.
- 다음은 2012학년도에 처음으로 모집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에 대한 등록금 책정(안) 심의에 들어가, 위원장은 타대학 평균 등록금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자 정지열 위원의 동의에 이어 김혜진 위원이 제청하여 원안대로 가결되다.
-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의 시간제등록생 등록금 책정(안) 심의에 들어가, 시간제 등록생 등록금은 학점은행제에 준해 전년도와 동일한 학점당 70,000원에 책정한 배경을 위원장이 설명하자 이승원 위원의 동의에 이어 지유정 위원의 제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 위원들은 세 안건 모두 학생을 위한 적절한 책정이었음에 위원 모두 동의하다.
- 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2012. 1.18

위 회의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위원장	이 주 원	(인) 
위 원	이 승 원	(인) 
	정 지 열	(인) 
	박 유 미	(인) 
	김 혜 진	(인) 김혜진
	지 유 정	(인) 
	이 지 흥	(인)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12. 1.18

숭의여자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숭의여자대학 총장 귀하